

# 70년대의 모순 파헤친 비평집

## 윤구병의 「눈먼 뱀길」

前시대에 씌어졌던 글이나 주장들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의 시점에서 그대로 유효하고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詩나 小說과 같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또 그저 부담없이 읽혀지는 신변잡기나 수필 같은 장르가 아닌, 당대의 삶의 구조와 그 단면을 가장 날카로운 시각으로 드러내는 時評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구병의 문화비평집 「눈먼 뱀길」은 지나간 과거에 씌어진 글들을 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진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실린 많은 부분들이 현대사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유신 치하에 씌어진 글로서, 첨예하게 드러났던 당시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함께 사회 구성구석에까지 미치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깔려 있다.

에세이 「눈먼 뱀길」은 고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철저히 소외되고, 그 결과 나약한 순응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시민像을 ‘허무’씨라는 인물의 생활을 통하여 묘사함으로써 70년대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제시한 허무씨는 30대의 소시민적 한국적 지식인의 전형이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차며, 어떤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멀쩡하게 알고 있으나 역경을 뚫고 나갈 영웅적인 기백도, 순교를 할 만한 용기도, 세력 있는 자에게 빌붙을 약삭빠름과 알랑기도 지니지 못하기에 비실비실 그는 속으로 웅크려

들어서 이름없는 나사못으로 꽃혀 지내는’

소시민이다. 이 허무씨로 상징되는 소시민과 함께 저자가 가여린 애정을 품고 있는 것은 — ‘법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으므로 그들은 상대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수도 없고, 또 살 생각도 않는’ — 도시 빈민 계층이다.

이러한 계층들의 삶은 유신의 몰락과 충격적인 정치적 변혁의 와중에서도 사라지지, 쉽게 치유되지도 않는 상처처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기에 민주화라는 변혁기를 맞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절실한 것이다.

저자의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6·29 이후로 마치 민주화의 봄이 온 것처럼 성급하게 겨울 옷을 벗어던지는 착각과 순응주의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화시평」, 「숨어 사는 외톨박이」, 「이땅의 사람들」편은 일찌기 황색 잡지문화의 홍수 속에서 외연함을 견지했던 월간 「뿌리깊은 나무」의 편집장을 지낸 저자의 문화관이 잘 나타나 있는 글들이다.

여기서 저자는 파행적인 사회발전에 따른 상실에 대한 애착과, 기형적인 문화현상, 그리고 패배주의의 산물인 말초적 가치관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민주화라는 전환기에서 ‘제대로 가는 뱀길’을 위한 되새김이 될 만한 책이다.

소창섭

대구시 동구 효목1동 91-30 · 회사원

#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살이

## 알폰스 도데의 「꼬마 철학자」

「꼬마 철학자」는 알폰스 도데의 처녀작이다. 자전적 성격을 갖는 이 소설은 주인공 다니엘 에세뜨를 통해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꼬마 다니엘의 동심에는 혁명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공장이 무인도의 정글로 보이고, 자신을 로빈슨 크루소로 변신시켜서 상상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파란색 새장과 희망의 초록색 앵무새가 이끄는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하나씩 무너지게 된다.

통과제의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동심 사이에서 겪어내야 하는 갈등을 다니엘이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그 순수성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를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영원히 ‘아이’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일컫는 다니엘의 천진함은 작품의 저변에 흐르는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아이’의 눈을 통해 인간의 표면과 그 이면을 읽어내게 한다. 제르만느 신부의 괴짜 같은 인상과 얼굴에 난 흉터의 그 깊은 내면에는 다니엘의 영혼을 푸근히 감싸주는 헤아림이 자리하고 있음을 체험한다. 타고난 울보인 형 자크는 그 나약함의 또다른 측면에 동생을 위한 헌신적이며 모성적인 사랑이 자라잡고 다니엘을 보호한다.

또한 순수한 사랑으로 꽃피운 빼에로또에게서 검은 눈동자의 여인을 발견해내는 예술가적인 직감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교감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빼에로또양이 검은 눈동자의 그녀와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경계한다는 섬세한 표현은 동일한 안에서 여러 측

면을 간파해내는 맑은 정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평범한 인간에게서 진실과 영혼의 순수성을 발견하고, 허영과 위선 속에서 비인간성과 잔인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見者 다니엘은 ‘아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見者일 뿐 동참자이거나 혹은 상황 해결의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꼬마 철학자이다.

그러나 편법과 비리가 만연하고 그것이 처세의 비법처럼 여겨지는 현실, 그 현실을 대충 웃어넘기며 사는 어른들 때문이 아닌 눈을 통해서 벌거벗기는 대담함이 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읽고 괴로워하면서도 이웃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관계의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 세상이 험하다는 사실에 눈감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만하다는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살이이다. 그런데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다운 어른, 아이가 닮고 싶어할 만한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어른은 위로자이거나 속물의 유형에 속할 뿐이다.

세상 밖에서 서성이는 ‘아이’는 세상 안에서의 어른다운 어른을 모색하고 삶의 비전을 현실의 기반 아래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인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1(20/1)



인정의 기미를 침착하게, 그 가리나 습속과

### 이시대의 숨은 비평가들을 담담히 드러내고 있는 高時洪의 첫 소설집 대통령의 손수건

玄吉彦 全作長篇 80년대작가玄吉彦의問題作

# 不妊時代

유신시대 빈민층의 삶을 살아온 지식인들의 책-비판 모습!

# 불임시대

시범시험에 합격한 101출신의 주인공 민상구, 그는 왜 법관의 길을 가지 않고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전공해야 했는가? 값 3,000원



서울 강남구 서초동 569번지  
☎ 562-3637, 555-7811

## '87 노벨문학상 후보작! 이브의도시

### 가슴으로 번지는 문학적 감동!

황금빛 낙엽이 흩어지면 '이브의 도시' 보스턴에서 펼쳐지는 로렌스적 사랑 / 神과 컴퓨터와 代理섹스가 소설적으로 어우러진, 존 업다이크가 펼치는 현대판 '주홍글씨'이다.

황금빛 낙엽이 흩어지면 '이브의 도시' 보스턴에서 펼쳐지는 로렌스적 사랑! 값 3,500원



존 업다이크 작 張旺祿 옮김